

## 영암마산리요지, 7~8세기 영산강 도기 역사 퍼즐 맞춰

### 전남도 기념물 지정, 마한·백제~통일신라말 지역 도기 역사 공백 메워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가마터가 '영암 마산리 요지'의 명칭으로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통일신라시대 지방 도기 생산 체계를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역사·학술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것.

영암 마산리 요지는 2021년 시굴조사, 2022~2024년 세 차례 발굴조사로 10기 가마와 그 유구(구조·양식)가 확인됐다.

동시에 통일신라 도기의 특징인 원문(원 모양), 염문(나뭇잎 모양), 점열(이여 찍은 점 모양), 파상선각문(파도선 모양) 등 인화문 유물도 다량 출토됐다.

이를 바탕으로 영암군은 마산리 요지 도기 생산 시기를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660년 백제 멸망, 686년 통일신라 지방 통치 체제 9주 5소경 정비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도 이 지역에서 대

량 도기 생산 체제가 유지되며 중앙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적으로 보고 있다.

통일신라는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한 초기부터 월출산을 영산으로 관리하며, 천황봉을 국가 산천 제사인 '소사지(小祀地)' 장소로 삼아 귀하게 여겼다.

나아가 월출산 주위에 관아·제사·사찰 등 주요 건물 등을 조성했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활, 의례에 필수인 도기를 마산리 요지에서 공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리 요지는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3~6세기 고분 용골·토기,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로 연결되는 9~10세기 영암 구림리 요지 사이를 매우는 유적으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마산리 요지의 발굴과 기념물 지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암 지역 도기 역사에서 7~8세기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



다. 9~10세기의 영암 구림리 요지에서 4.7km 떨어진 곳에서 시대상 한 단계 앞선 유적이 발굴되며 이 지역 대규모 도기 생산 집단과 전문 장인의 맥이 끊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마산리 요지는 마한시대부터 이어진 영산강 유

역의 도기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암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 함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 교육과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고흥군, 목일신 동요 교실·김연수 판소리 교실 운영

초등학교 대상 고흥 출신 음악인 업적 계승 및 문화예술 정서 함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고 고흥 출신 음악인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2026년 '목일신 동요 교실'과 '동초 김연수 판소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 출신 은성(隱星) 목일신 선생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요 '자전거', '자장가'를 작사한 동요작가로, 한국 아동문학과 음악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또한, 고흥군 금산면 출신의 동초(東超) 김연수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전승자로서 동초 판소리를 정립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군은 지역 출신 음악인의 문화적 가치를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우리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요·판소리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16개 교에서 목일신 동요 교실이, 7개교에서 동

초 김연수 판소리 교실이 운영된다. 전문 지도 강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주 1~2회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동요 교실에서는 목일신 선생이 작사한 동요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작 동요를 학습하며, 판소리 교실에서는 동초 판소리와 함께 심청가, 흥부가 등 주요 판소리 대목을 배우게 된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목일신 선생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김연수 선생이 계승한 흥겨운 판소리를 직접 배우며 우리 고유의 음악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동요·판소리 교실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나르발호 사건, 고교 프랑스어 교과서 수록... 한불 첫 만남 재조명

인도주의적 구조와 문화교류의 기록, 미래 한불 교류 기반으로 1851년 전라도 나주목 관할 해역에서 이뤄진 한국과 프랑스의 첫 공식 외교적 접촉 '나르발호 사건'이 고등학교 심화 프랑스어 교과서에 수록되며 나주의 역사적 위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교과서 수록에 기여한 최내경 집필총괄자(서경대학교 교수), 김미연 검토위원(서울사대부고 프랑스어 교사), 양수경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한국불어교사협회 대의협력자), 前 광주 불어교사 협회장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체결된 조불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Pierre-Emmanuel Roux, 파리시테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따라 이보다 앞선 1851년 '나르발호 사건'이

한국과 프랑스 첫 외교적 접촉의 중심지 나주 역사적 위상 부각

고등학교 심화 프랑스어 교과서 문화 편 수록... 교육 현장 확산

양국 간 첫 외교적 접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르발호(Narval) 사건'은 1851년 4월 2일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가 전라도 나주목(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사건으로 당시 선원 29명이 비금도에 상륙했고 이 소식은 중국 상하이에 주재하던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Charles de Montigny)에게 전달됐다.

몽티니는 같은 해 5월 2일 직접 비금도를 방문해 자국민 구조에 나섰다. 당시 나주 목사직을 겸임하던 남평현감 이정현은 프랑스 외교 사절단을 정중히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의 전통주와 프랑스의 샴페인을 함께 나누는 우호적인 만찬이 마련됐고 이는 인도주의적 구조를 넘

어선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몽티니가 기념으로 받은 조선 응기 술병은 현재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역사적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3년 '한국과 프랑스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포럼'을 시작으로 나르발호 사건을 소재로 한 전시체험관 조성 및 역사문화 제작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교과서 수록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성과다.

아울러 나주시는 지난 6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조불수호통상조약보다 35년 앞선 한불 첫 외교사의 중심에 나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인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와 음식과 문화가 함께한 우호의 기록이 미래 한불 교류의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꿈꾸던 고려청자를 내 품에', 고려청자 할인 경매 개최

오는 28일 제54회 강진청자축제 기념, 전국 청자 애호가들 눈길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제54회 강진청자축제를 맞이해 청자 50% 할인 경매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경매 행사에 앞서 경매 대상 작품의 전시회를 박물관 로비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매는 호가경매 방식으로 30%~50% 저렴하게 청자를 구매 할 수 있다. 이에 청자 애호가들은 이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경매에 눈여겨 볼 작품은 대구광역시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인 국보 68호 유물의 천년의 기운을 받고 재현한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다. 이 작품을 재현하는 데에 같은 크기의 매병 3개를 조각하는 시간과 작가의 숨결이 들어갔다. 쉽게 볼 수 없는 작품이라 불꽃 튀는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반상기 2세

트를 정가의 30%의 금액대에 구매 할 수 있는 '진행자의 마음을 맞춰라'도 진행된다. 진행자가 작품에 가격을 매기고 애호가들이 가격을 맞추는 진행 방식이다. 이번 경매에서 30%대에 소장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할인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낙찰 후 발급받은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강진 반값여행'에 신청하면,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최영천 고려청자박물관장은 "강진이 천년 고려청자의 본고장이니만큼 이번 경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강진청자를 소장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